

사회문화적 관점에 근거한 청소년 문제의 이해*

박성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청소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제 하위문화들(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과 청소년문제간의 유동적 결합관계를 밝히는 세 가지 개념모델들을 설정하였고, 설정된 개념모델들의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시 단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의뢰된 중·고등학생 1,09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AMOS 4.0에 의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의 결과, 세 가지 모델 모두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각 모델들 간 비교를 통해 <개념모델 2>를 최적 모델로 채택하였다. <개념모델 2>에 의하면, 학교문화는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문화를 매개하여 간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는,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문제에 역시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문화는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문화를 매개로 하여도 청소년문제에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문제를 예방 혹은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의 역기능적 측면을 감소시킴과 아울러 청소년문화를 재해석하여 교육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제어 : 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 이 연구는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6-B00353).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교수(psm1994@dongseo.ac.kr)

I. 서론

최근 들어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문제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이상균, 2005; 최소영, 1999). 보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하며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대처하며 예방하려는 교육적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는 오히려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 큰 교육적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일각에서는 청소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에 대한 설명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김혜영, 2002; 배영미, 1998). 사회문화적 관점의 연구들(Fraser, 1996; Maslowski, 2006; Sellman, 2002)을 살펴보면,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제 하위문화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먼저, 청소년은 학교라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므로(정준교, 2001), 준거문화와 같은 학교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학교문화의 일면을 공유하면서도 그들이 속해있는 청소년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특질을 가지려 한다(조용환,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여기서 청소년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특질은 때로 전체 사회문화 혹은 학교문화의 규범이나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가 흔하다(김미윤, 2003). 그로 인해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 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격차가 커지게 되면 갈등 이상의 대립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임상록, 2002; Clement, 2003).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문화는 학교문화와 병존하기 어려운 반문화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건만, 1999; Draper, 2001; Hobby, 2004). 그리고 이러한 반문화의 맥락에서 청소년 문제가 비롯된다고 본다(Dewit, 2000; Patterson, 2000).

이처럼 청소년 문제의 근원을 청소년문화로 귀인시키는 것은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된다. 그러나 청소년집단의 독특한 문화적 특질은 단지 준거문화, 이를테면 학교문화에 반항 혹은 거부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에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 수 없다(정유성, 1999; Draper, 2001).

이와는 반대로 청소년문제와 학교문화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들(김민, 2000; 임상록, 2002; 조용환, 2000)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형성되어 온 문화적 풍토

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문제의 방출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즉 학교문화는 입시위주 문화를 발달시킴으로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시킴은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가치와 판단의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김혜영, 2002). 이는 청소년의 문제가 청소년문화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학교문화의 역기능적 산물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문화를 대안문화로 보려는 입장(김민정, 2003; 은지용, 2002; 정영애 · 김진화, 2001)에서는 학교문화에 대한 반문화로 인식되어왔던 청소년문화에서 오히려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문화를 재해석한 시도로서 청소년문화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청소년은 주변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이에 자신의 존재를 시위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 청소년문화를 형성한다고 본다(조용환, 2000). 그러므로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이 처한 전환기 혹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 혼란 및 동요를 또래집단에서의 귀속의식을 통해 안정감을 회복하려는 보상적 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청소년문화를 학교문화의 반문화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문화의 육성을 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도종수, 2003; 배영미, 1998; 정영애 · 김진화, 2001; 정준교, 2001; Bulach, 2001; Patterson, 2000).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생으로서 청소년은 준거문화이기 보다는 입시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학교문화와, 반문화이기 보다는 대안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청소년문화를 갈등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시문화는 청소년들의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동시에 그것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청소년문화가 그들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임상록, 2002; 정준교, 2001). 이렇듯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하위문화들은 각기 순기능 및 역기능을 지니고 있어 청소년의 삶 속에서 때로 갈등하고 때로 보완하는, 이른바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적 공존에서 청소년은 모순적인 정체성을 획득하여, 그로인해 청소년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제 하위문화들과 청소년문제간의 유동적 결합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청소년문제를 예방하

고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청소년문제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하위문화들간 그 관련성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는 극히 미진한 상태이다. 부분적으로 문화기술적 연구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하위문화들을 진술하게 설명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박성희, 1992; 최소영, 1996). 그러나 이 연구들 대부분이 질적인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그 연구결과를 보편적인 결과로 적용하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함과 아울러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간의 조화 및 갈등 관계 속에서 청소년문제를 보다 면밀히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적합도 검증을 위한 개념모델

한국사회에서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조직에 소속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문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정준교, 2001). 이와 더불어 학교문화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부가적으로 교사문화와 학생문화를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청소년은 학교를 떠나서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 속에서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방식과 그들의 삶에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체계로서 청소년문화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문제와 관련있는 하위문화들로서는 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를 각각 생각해 볼 수 있다(정준교, 2000; 조용환, 2000; 황기우, 2002). 이러한 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문제와 정적 혹은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Maslowski, 2006; Sellman, 2002). 이에 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가 어떻게 청소년문제를 유발시키는지를 알아보하고자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세 가지 가설적 개념모델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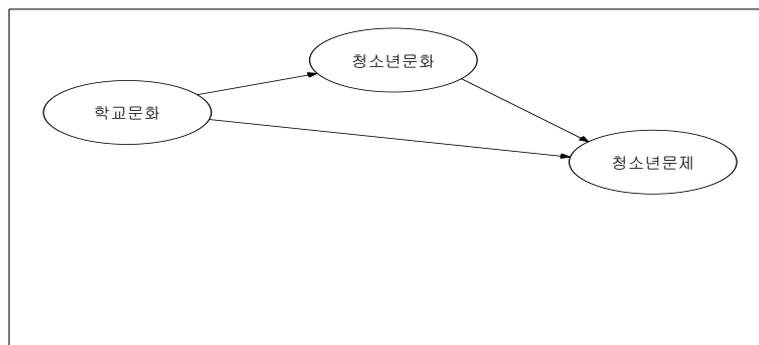
1. 개념모델 1

기본적으로 학교문화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준거문화로 기능을 한다는

전제 하에 학교문화가 청소년문제를 유발시킨다고 보지 않았다. 이런 시각의 연구(이건만, 1999; Draper, 2001; Hobby, 2004)를 살펴보면, 청소년 문제는 학교문화의 반문화적 맥락, 즉 청소년 문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청소년문제는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김민, 2000; 임상록, 2002; 조용환, 2000).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실제로 청소년들도 학교를 자기계발과 자아성취를 위한 곳이 아닌, 학력을 갖추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정준교, 2001). 그로인해 청소년들은 학교문화로부터 억압과 통제를 경험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최소영, 1996).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수업시간 중 핸드폰 문자 보내기, 이어폰 끼고 음악듣기, 만화책 보기, 일탈행동 등 새로운 풍토, 즉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이처럼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학교문화로부터 학업부적응,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며, 또 다른 한편으로 학교문화의 반문화적 성격을 띤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개념모델 1>에서는 학교문화의 역기능이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반문화적 청소년문화가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개념모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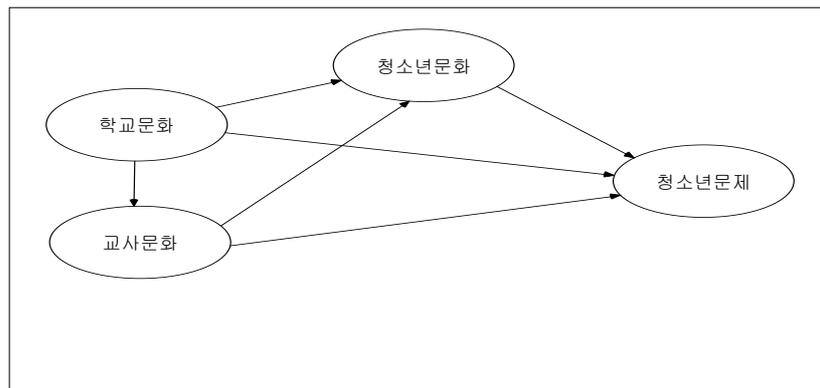
2. 개념모델 2

학교교육의 맥락에서는 교사 없이 청소년인 학생이 있을 수 없고, 학생 없이 교사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사문화는 청소년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 및 변화하고, 청소년문화는 교사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 및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정준교,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교사문화는 직업인으로서 교사들이 공유하는 교수(가르침)에 관한 의식, 지식, 가치, 기술, 전략 등을 의미하며 그들이 학교 내에서 영위하는 삶의 방식과 그 원리를 의미한다(황기우, 2002).

그런데 준거문화적 특성의 교사문화는 학교라는 현장을 중심으로 자유로움과 해방의식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청소년문화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요인이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청소년인 학생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다(Dewit, 2000).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할 수 있는 두 번째 <개념모델 2>에서는 <개념모델 1>에 교사문화라는 새로운 변인을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개념모델 2>는 학교문화와 교사문화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힘의 논리로 준거문화인 학교문화, 교사문화가 청소년문화에 영향을 미침과 아울러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반문화적 맥락의 청소년문화 역시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개념모델2>

3. 개념모델 3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청소년이 학교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청소년=학생’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주된 지위와 역할의 개념에 기초하여 학생문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정준교, 2001). 학생문화는 ‘청소년 중 학업청소년이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양식들’ 혹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지침이자 지표’라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문화는 학업 청소년의 행동양식이나 가치관 및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용환(2000)은 우리 사회에서 학생집단 특유의 문화가 과연 있는지, 있다면 그 고유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청소년문화와 학생문화는 별개의 것이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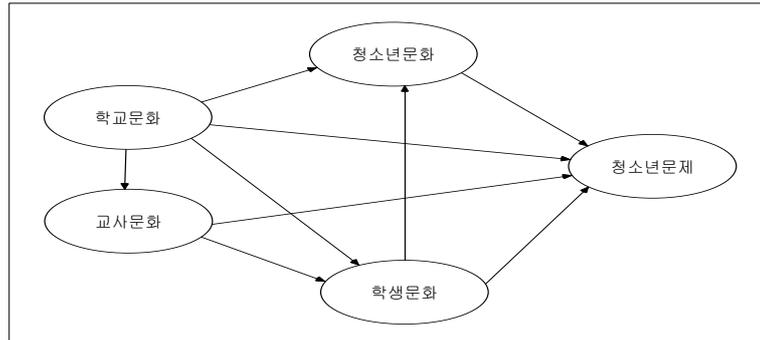
한편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개념적 틀 속에서 학생문화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는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정준교, 2001). 이를테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의미있게 재해석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위 규범인지 일탈행동이든지 간에 학생들의 학교 내 일상생활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생활양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Littrell, 2001).

이런 관점에 기초하여 학생문화는 학업지향문화, 친구지향문화, 놀이지향문화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곽혜정,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여기서 학업지향문화는 학업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지적인 추구에 보다 관심이 많은 문화를 말하며, 친구지향문화는 학교에는 흥미가 적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에 만족을 보이는 문화를 말한다. 그리고 놀이지향문화는 학업에 대한 흥미보다 사춘기의 심리에 자극되어 이성간의 문화, 운동, 음악, 춤 등에 흥미를 갖는 문화를 말한다.

이상으로 학생문화의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학생문화는 학교문화의 주된 순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또 다른 일부 학생문화는 반문화적 특성을 띄고 있는 청소년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추정할 수 있는 세 번째(개념모델 3)에서는 <개념모델 2>에 학생문화라는 새로운 변인을 하나 더 추가하여, 학교문화 및 교사문화의 관련성 속에서 학생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문화 역시 청소년문화와 관련성이 있고, 이런 과

정에서 제 하위문화들이 청소년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개념모델 3>

이와 같이 설정한 세 가지 개념모델들의 특징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가 서로 갈등과 조화, 대립과 동조의 형성과정을 통해 청소년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Maslowski, 2006).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청소년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세 가지 개념모델을 설정하였다. 둘째, 검증하려는 변인들의 측정모델 적합성 여부와 설정한 세 가지 개념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시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곳(경기, 충남, 전북, 울산, 경남)에 의뢰된 중2·중3·고1·고2 1,095명(남중생 152명, 여중생 152명, 남고생 322명, 여고생 469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다. 셋째, 세 가지 구조모델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 4.0에 의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이에 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가 청소년 문제에 미치는 직접 혹은 간접 경로와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가설적 개념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잠재변인(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 문제)을 측정하였다.

1) 학교문화 측정

학교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박진규, 2003; 조용환, 2000; 정준교, 2001)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16문항).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학교문화는 학업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학력지향, 학업생활과 학생다움의 수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문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입시풍토 속에 이루어지는 수업·시험공부를 위한 자유포기,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사, 경쟁자로서의 교우, 학교 규칙의 이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구성된 학교문화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83으로 나타났다.

2) 교사문화 측정

교사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김달효, 2005; 박진규, 2003;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14문항).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교사문화는 학교 내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서 가르침에 관한 의식, 지식, 가치, 기술, 전략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사문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학생들에게 성장 격려, 선의의 경쟁 동기부여, 학생들에 대한 훈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구성된 교사문화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81로 나타났다.

3) 학생문화 측정

학생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박진규, 2003; 장원규, 200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12문항).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학생문화는 입시문화를 부정할 수 없는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그것에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문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학생으로서의 입시문화와 자유추구의 대중문화를 주된 내용으로 재미있는 수업, 학업과 음악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갈망, 친구 같은 교사로부터의 교육 추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구성된 학생문화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78로 나타났다.

4) 청소년문화 측정

청소년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권이중, 1996; 박금주·김의철·박영신, 1999; 최소영,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26문항).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청소년문화는 학생으로서 당연시되는 생활풍토에서 탈피하려는 청소년의 또 다른 측면으로 비학업생활과 ‘학생다움’의 이탈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문화를 측정하는 문항은 학교 규칙의 파괴, 공부 대신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학업이외의 즐거움 추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구성된 청소년문화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90으로 나타났다.

5) 청소년문제 측정

청소년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고기홍, 2003; 김혜은, 1996; 배영미, 1998; 이형하, 2003) 및 경험연구에 기초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12문항). 특히 청소년문제는 학습문제,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포함), 진로문제, 생활습관, 일탈행동(금품 및 물품갈취, 폭력),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구성된 청소년문제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77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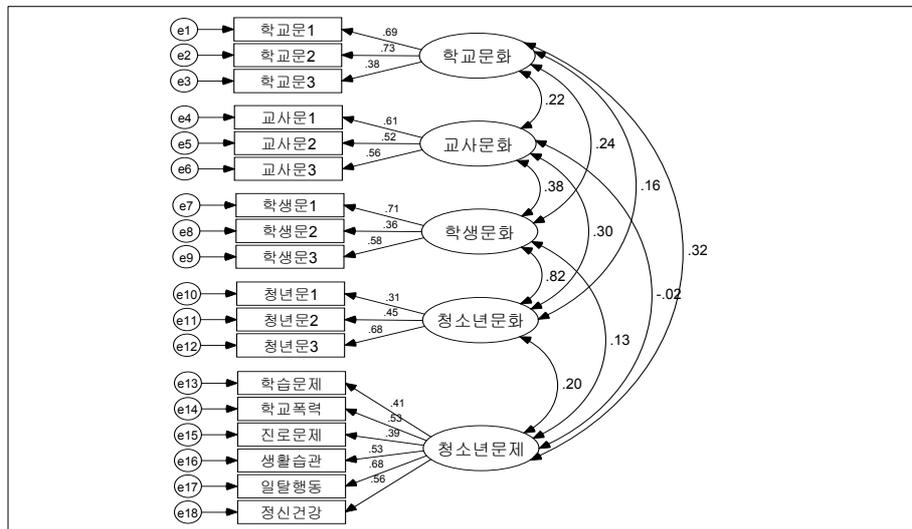
1. 측정모델의 분석

공변량 구조분석에 앞서 관찰변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4.0에 의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 <표 1>와 같다. 측정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χ^2 , GFI, NFI, CFI, RMSEA 등을 산출하였는데, 이들은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적합도 지수들은 측정모델이 경험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인에 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 / df	GFI	NFI	CFI	RMSEA
979.22(p<.01)	125	7.83	.980	.980	.982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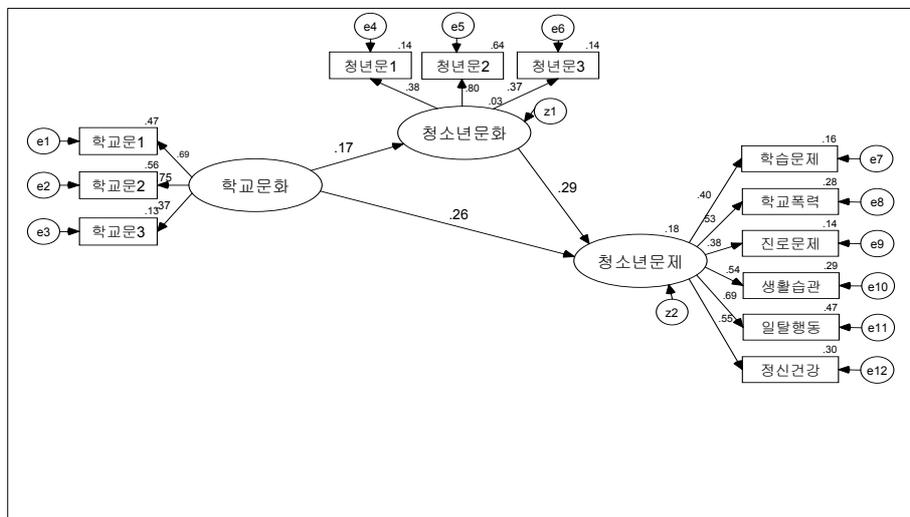
[그림 4] 측정모델의 적합성 검증

2. 개념모델의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모델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제안된 세 가지 개념모델의 적합도 검증을 AMOS 4.0에 의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하였다. 제안된 개념모델이 경험 자료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 F, GFI, NFI, TLI, CFI, RMSEA 등을 산출하였으며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1) <개념모델 1>의 적합도 지수 및 인과관계 경로 추정

<개념모델 1>에서 추정된 구조모형은 [그림 5]와 같으며, 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은 458.94($df=51$), F값은 .373, GFI값은 .927, NFI값은 .985, TLI값은 .979, CFI값은 .986, RMSEA값은 .0.086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념모델 1>의 추정된 구조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념모델 1>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그림 5] <개념모델1>

<표 2> <개념모델 1>에서 추정된 구조모형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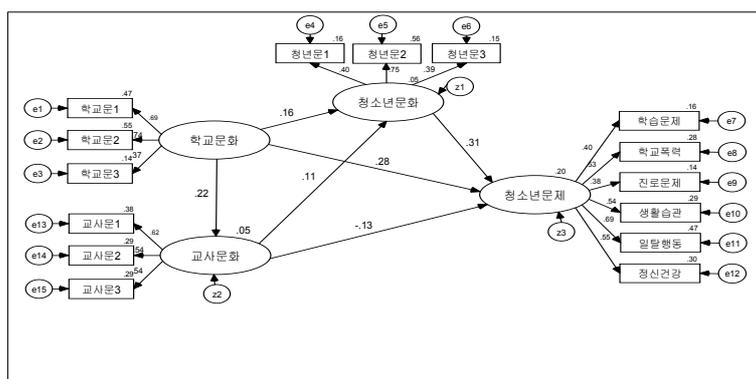
구조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효과	간접효과 경로	
학교문화	→	청소년문화	.17**		.17**	
	→	청소년문제	.26**	.05	.31**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제	.29*		.29**	

** p<.01

<표 2>에 의하면, 학교문화는 청소년문화에 .17, 청소년문제에 .26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문화를 매개하여 청소년문제에 .05의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근거하여 학교문화의 전체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문화는 청소년문화에 .17, 청소년문제에 .31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문제에 .2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가 청소년문제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념모델 2>의 적합도 지수 및 인과관계 경로 추정

<개념모델 2>에서 추정된 구조모형은 [그림 6]과 같으며, 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은 541.03($df=84$), F값은 .418, GFI값은 .931, NFI값은 .983, TLI값은 .983, CFI값은 .988, RMSEA값은 .071로 나타났다. 이는 <개념모델 2>의 추정된 구조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념모델 2>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그림 6] <개념모델2>

<표 3> <개념모델 2>에서 추정된 구조모형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

구 조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효과	간접효과 경로	
학교문화	→	교사문화	.22**		.22**	
	→	청소년문화	.16**	.02	.18**	교사문화
	→	청소년문제	.28**	.03	.31**	청소년문화
교사문화		청소년문화	.11**		.11**	
		청소년문제	-.13**	.03	-.10**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3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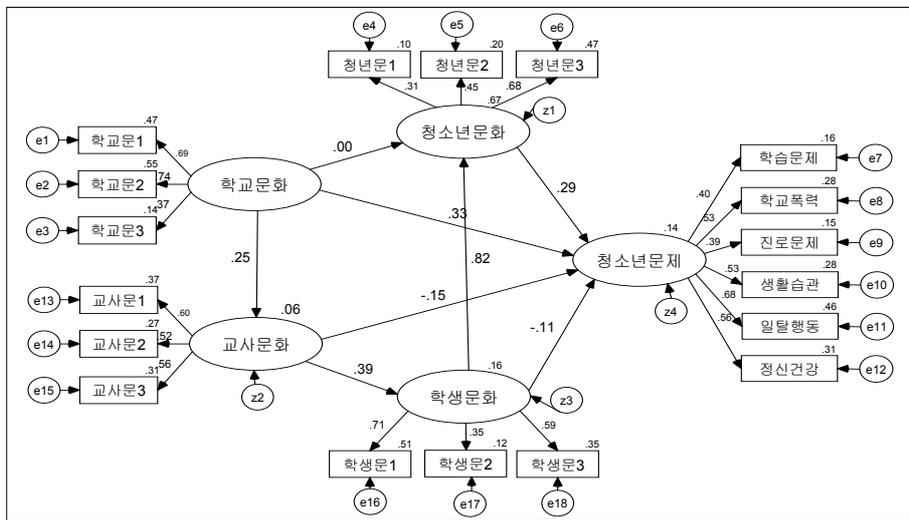
** p<.01

<표 3>에 의하면, 학교문화는 교사문화에 .22, 청소년문화에 .16, 청소년문제에 .28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문화를 매개하여 청소년문화에 .02, 청소년문화를 매개하여 청소년문제에 .03의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근거하여 학교문화의 전체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문화는 교사문화에 .22, 청소년문화에 .18, 청소년문제에 .31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문화가 교사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문화는 청소년문화에 .11, 청소년문제에 -.13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를 매개하여 청소년문제에 .03의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근거하여 교사문화의 전체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문화는 청소년문화에 .11, 청소년문제에 -.10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문제에 .31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교사문화는 청소년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개념모델 3>의 적합도 지수 및 인과관계 경로 추정

[개념모델 3]에서 추정된 구조모형은 [그림 4]과 같으며, 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은 979.25($df=126$), F값은 .780, GFI값은 .898, NFI값은 .980, TLI값은 .976, CFI값은 .982, RMSEA값은 .079로 나타났다. 이는 <개념모델 3>의 추정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념모델 3>에 관련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학교문화는 교사문화에 .22, 학생문화에 .16, 청소년문제에 .33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문화를 매개하여 학생문화에 .07, 교사문화와 학생문화를 매개하여 청소년문화에 .20의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근거하여 학교문화의 전체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문화는 교사문화에 .22, 학생문화에 .24, 청소년문화에 .16, 청소년문제에 .31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문화가 청소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개념모델>

또한 교사문화는 학생문화에 .34, 청소년문제에 -.13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문화를 매개하여 청소년문화에 .28, 학생문화와 청소년문화를 매개하여 .03의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근거하여 교사문화의 전체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문화는 학생문화에 .34, 청소년문화에 .28, 청소년문제에 -.09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문화는 청소년문화에 .83, 청소년문제에 -.16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를 매개하여 청소년문제에 .26의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근거하여 학생문화의 전체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생문화는 청소년문화에 .83, 청소년문제에 .10의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문제에 .32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교사문화는 청소년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개념모델 3]에서 추정된 구조모형의 직접, 간접, 전체효과

구 조 경 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 효과	간접효과 경로
학교문화	→	교사문화	.22**		.22**	
	→	학생문화	.16**	.07	.24**	교사문화
	→	청소년문화	-.04	.20**	.15**	교사문화→학생문화
	→	청소년문제	.33**	-.02	.31**	교사문화→학생문화→ 청소년문화
교사문화	→	학생문화	.34**		.34**	
	→	청소년문화		.28**	.28**	학생문화
	→	청소년문제	-.13**	.03	-.09**	학생문화→청소년문화
학생문화	→	청소년문화	.83**		.83**	
	→	청소년문제	-.16**	.26**	.10**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	→	청소년문제	.32**		.32**	

** p<.01 * p<.05

4. 개념모델 비교

선행연구를 근거로 제시된 첫 번째 [개념모델 1]은 학교문화가 청소년문화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청소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다. 두 번째 [개념모델 2]는 교사문화를 추가하여, 학교문화와 교사문화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다. 세 번째 [개념모델 3]은 학생문화를 추가하여, 학교문화 및 교사문화와 학생문화가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다. 이상의 세 가지 개념모델을 비교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각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모델의 절대적합지수(GFI), 상대적합지수(NFI, CFI), 모델의 간명지수(TLI, RMSEA)를 검토해 본 결과, 두 번째 [개념모델 2]가 다른 개념모델에 비해 경험적 자

료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개념모델 적합도와 개념모델 비교 결과

개념모델 적합도								
개념모델	χ^2	F	RMSEA	GFI	NFI	TLI	CFI	df
개념모델1(M1)	458.94	.373	.086	.927	.985	.904	.936	51
개념모델2(M2)	541.03	.418	.071	.931	.986	.983	.988	84
개념모델3(M3)	979.25	.780	.079	.898	.980	.976	.982	126
개념모델비교								
	χ^2 차이							df차이
M1-M2	82.09							33
M2-M3	438.22							42
M3-M1	520.31							7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 속에 존재하는 제 하위문화들(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문화, 청소년문화)이 청소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전개에 따라 세 가지 개념모델을 설정하고 그 관련성을 탐색해보았다. 이에 세 가지 개념모델을 공변량 구조분석에 의하여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세 가지 개념모델 모두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추정된 <개념모델 2>가 다른 개념모델(<개념모델 1>, <개념모델 3>)에 비해 경험적 자료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조용환, 2000; 정준교, 2000)에서 이론적으로 설명되던 학교문화, 교사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간의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최적 모델로 확인된 두 번째 <개념모델 2>를 기초로 학교문화, 교사문화, 청소년문화와 청소년문제간의 관련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문화는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주며, 청소년문화를 매개하여, 청소년

문제에 간접적인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준거문화로써 청소년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일련의 관점들(이건만, 1999; Darper, 2001; Hobby, 2004)과 대치되는 결과이다. 반면에 청소년문제는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에 기인한다는 연구들(김민, 2000; 임상록, 2002; 조용환, 2000)을 지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학교문화가 청소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입시문화를 발전시킨 학교문화가 청소년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현 교육체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문화는 오히려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준거문화적 특성의 교사문화가 학교라는 현장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의 자유로움과 해방의식을 원래부터 갖고 있는 청소년문화(학생문화)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요인이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청소년인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Dewit(2000)의 관점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는 교사문화가 청소년의 문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청소년문화는 학교문화와 동일하게 청소년문제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준거문화의 반문화적 맥락에서 청소년문화가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이건만, 1999; Dewit, 2000; Draper, 2001; Hobby, 2004; Patterson, 2000)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문화 그 자체가 일탈 혹은 자유추구로서 표출되는 양식으로 청소년문제에 일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청소년 관련 제 하위문화들은 각기 순기능 및 역기능을 가지고 이들 간에 유동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청소년의 삶 속에서 때로 갈등하고 때로 보완하는, 이른바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적 공존에서 청소년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문제를 예방 혹은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의 역기능적 측면을 감소시킴과 아울러 청소년문화를 재해석함으로써 이를 교육적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기초하여 청소년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

여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제 하위문화들이 청소년문제를 유발시키는 문화기술적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문제를 정의하는데 있어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섯 영역으로 묶어 청소년과 관련된 제 하위문화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으나 청소년문제의 유형별로 청소년 관련 제 하위문화들의 영향력과 그 역동적인 관련성이 다양할 것이라 짐작된다. 이러한 보다 상세한 접근은 청소년 문제의 유형별 예방 및 대처에 교육적 근거로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개념모델 2>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유형별에 따른 청소년 문제와의 관련성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청소년 관련 제 하위문화들에 있어 성차가 존재할 것이며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부과된 발달적 목표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다른 설명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고기홍(2003). 학업중단 청소년문제와 상담적 개입 방안. 제주대 학생생활연구소 학
생생활연구, 제24권, pp.117~136.
- 곽금주·김의철·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 중
김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5권 제1호, pp.111~121.
- 곽혜정(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문화와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서울교육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중(1996). 청소년과 문화. 한독교육학연구, 제1권 제1호, pp. 97-111.
- 김달효(2005). 교사의 훈육유형과 훈육효과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윤(2003). 사이버공간 경험의 의미와 청소년문화.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11~232.
- 김민(2000). 청소년복지실현을 위한 학교문화의 과제. 충북교육학연구, 제3권 제1호,
pp.89~112.
- 김민정(2003). 청소년 문화복지 실태 및 만족도와 요구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
권 제1호, pp.45~87.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pp.213~242.
- 김혜운(1996). 청소년문제와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의 문화적 특수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9권 제2호, pp.50~67.
- 도종수(2003). 정보화시대의 청소년문화 실태와 발전방향. 지성과 창조, 제6권, pp.
167~189.
- 박성희(1992). 청소년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10권, pp.53~76.
- 박진규(2000). 청소년 집단 따돌림(왕따)현상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일 고찰. 청소년학
연구, 제7권 제2호, pp.39~71.
- 박진규(2003). 청소년문화. 서울: 학지사.
- 배영미(1998). 가정과 교육에서의 청소년문제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연구(Ⅰ). 한국가
정과교육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23~136.
- 은지용(2002). 청소년문화 연구의 대안적 접근. 시민교육연구, 제34권 제2호, pp.

- 149~176.
- 이건만(1999). 학교교육과 청소년 저항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회: KRF 연구결과 논문.
-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 복지학, 제19권, pp.141~170.
- 이형하(2003). 인터넷 중독정도가 도서지역 청소년의 심리정서, 행동, 학업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63~288.
- 임상록(2002).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현상적 특성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소 학생생활연구, 제7권, pp.63~80.
- 장원규(2004). 초등학생의 학습문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애 · 김진화(2001). 청소년의 엽기문화와 교육적 함의. 창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 인문논총, 제8집, pp.143~156.
- 정유성(1999). 청소년문화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제21권, pp.143~170.
- 정준교(2000). 학교문화유형과 학생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1호, pp.143~182.
- 정준교(2001). 학교문화유형, 학교조직몰입 및 학교중퇴의도의 관계. 연세경영연구, 제38권 제1호, pp.133~168.
- 조용환(2000). '교실붕괴'의 교육인류학적분석: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제3권 제2호, pp.43~66.
- 최소영(1996).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문화의 이중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소영(1999).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9권 제4호, pp.870~879.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복지론. 서울: 교육과학사.
- 황기우(2002). 교사문화의 생성과정 분석. 교육문제연구, 제17권, pp.213~228.
- Bulach, C. R.(2001). Reshaping school culture to empower its partners. *The Education Digest*, 67(1), pp.8~11.
- Clement, C.(2003). Connecting school principals school culture and school improvement. *Leading and Managing*, 9(2), pp.112~116.

- Dewit, D. J.(2000). The effect of school culture on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self-esteem, attachment to learning, and peer approval of deviance as mediating mechanism.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6(1)*, pp.15~38.
- Draper, I.(2001). A cultural revolution performance management with a look at the possible impact it will have on school culture. *Managing Schools Today, 10(5)*, pp.33~35.
- Hobby, R.(2004). Change your school culture. *Managing Schools Today, 13(6)*, pp.24~27.
- Fraser, M. W. (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41(4)*, pp.347~361.
- Littrell, J. M.(2001). Transforming the school culture: A model based on an exemplary counsel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5)*, pp.310~319.
- Maslowski, R.(2006). A review of inventories for diagnosing school cultur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4(1)*, pp.6~35.
- Patterson, W.(2000). Grounding school culture to enable real change. *The Education Digest, 65(9)*, pp.4~8.
- Sellman, E.(2002). Peer mediation, school culture and substantiality. *Pastoral Care in Education, 20(2)*, pp.7~11.

ABSTRACT

An Analysis about Problem of Adolescent Based on the Sociocultural Approach

Park, Sung-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bout problem of adolescent based on the sociocultural approach(cultural of school, cultural of teacher, cultural of student, cultural of adolescent). The research subjects were 1,095 stud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by AMOS 4.0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concept [Model 2] on the basis of pre-researches was fittest model. (2) On the basis of the concept [Model 2], cultural of school effected to positive directly cultural of teacher, cultural of adolescent and problem of adolescent. And cultural of teacher effected to negative directly problem of adolescent. Also cultural of adolescent effected to positive directly problem of adolescent.

Key Words : problem of adolescent, cultural of school, cultural of teacher, cultural of adolescent

투고일 : 6월 18일, 심사일 : 7월 22일, 심사완료일 : 8월 14일

* Dongseo University

<부록 1> 측정변인들의 상호상관(N=1,095)

		1	2	3	4	5	6	7	8	9
학교문화	1. 학교문1	1.000								
	2. 학교문2	.517**	1.000							
	3. 학교문3	.221**	.281**	1.000						
교사문화	4. 교사문1	.083	.099	.093	1.000					
	5. 교사문2	.089	.087	.104	.328**	1.000				
	6. 교사문3	.052	.077	.109	.336**	.295**	1.000			
학생문화	7. 학생문1	.141**	.095	.196	.184**	.148	.223**	1.000		
	8. 학생문2	.179**	.203**	.028	.125**	.061	.081	.220**	1.000	
	9. 학생문3	-.012	-.002	.227**	.070	.033	.096	.418**	.252**	1.000
청소년문화	10. 청년문1	.133**	.099	.027	.102	-.011	-.040	.105	.326**	.147**
	11. 청년문2	.051	.085	.162	.052	.023	.030	.123**	.199**	.245**
	12. 청년문3	.052	-.035	.236**	.152**	.106	.165	.479**	.085	.327**
청소년문제	13. 학습문제	.145**	.115**	.222**	-.022	.016	.000	.025	.029	.147**
	14. 학교폭력	.104	.100	.015	.043	-.014	-.029	-.068	.123**	.016
	15. 진로문제	.146**	.031	.186**	-.025	.007	.003	-.016	-.026	.111**
	16. 생활습관	.094	.088	.132**	-.019	-.065	-.012	.084	.190**	.137**
	17. 일탈행동	.137**	.136**	.038	-.006	-.038	-.045	-.072	.103**	.077*
	18. 정신건강	.170**	.122**	.140**	.030	.005	.074	.062	.088	.155**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학교문화	1. 학교문1									
	2. 학교문2									
	3. 학교문3									
교사문화	4. 교사문1									
	5. 교사문2									
	6. 교사문3									
학생문화	7. 학생문1									
	8. 학생문2									
	9. 학생문3									
청소년문화	10. 청년문1	1.000								
	11. 청년문2	.289**	1.000							
	12. 청년문3	.143**	.307**	1.000						
청소년문제	13. 학습문제	.039	.089*	.053	1.000					
	14. 학교폭력	.085*	.088*	-.086*	.158**	1.000				
	15. 진로문제	-.029	.056	.055	.354*	.171	1.000			
	16. 생활습관	.155**	.264**	.075*	.219**	.226**	.181**	1.000		
	17. 일탈행동	.165**	.188**	-.067*	.174	.480**	.178**	.394**	1.000	
	18. 정신건강	.127**	.128**	.095*	.287	.232	.287**	.283**	.360**	1.000